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4 04 제183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자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자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자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희년을 준비하며 : 『기도,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술』

| 진행자 | : '희년을 준비하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자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자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자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부활 제3주일(4월 14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루카 24,35-48)



식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열한 명의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사하셨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고, 제자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런데 화가는 식탁에 구운 생선만 올려놓지 않고, 보리빵 다섯 개와 포도주 두 잔도 함께 올려놓아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인 빵의 기적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성체성사를 떠올리게 했다.

그림 두 초 | 1308-11년, 나무판에 템페라, 39.5x51.5cm, 시에나 대성당 미술관. 이탈리아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평화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희망의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35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36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43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46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루카 24,38)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루카 24,45)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답을 달라고, 보채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합니다. 답답해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며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수차례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돌아가셨다고 확신했던 분이 나타나 말을 걸어왔으니 놀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꾸짖기는커녕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상처를 보여 주시며 음식까지 먹는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설명보다 더 힘 있게 제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스승님에게서 이 사랑을 먼저 느꼈습니다. 애정을 확인받자 곧바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열어주신 셈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부활 제4주일(4월 21일)

나는 착한 목자다 (요한 10,11-18)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안고 마지막 양 무리와 함께 목장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목장의 입구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 쥐어 양들을 굳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분의 맨발은 목자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견해 준다.

그림 윌리엄 다이스 | 1859년, 캔버스에 유채, 78.9x63.5cm, 맨체스터 시립미술관, 영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평화의 주님, 이 시간 저희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희망의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1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12 샅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13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16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 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18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 10,14)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5)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에게나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부부의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인연들입니다. 어떻게 이 만남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하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도 못 하고, 남에게 당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착한 마음 뒤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작심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마음은 참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듯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성질대로 하는 것이 늘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늘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곁에는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어린이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남은 꽃입니다. 꽃이 건강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는 이렇듯 상대를 참아주고 그를 좋게 생각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만남의 연출자는 주님입니다. 그분께서 지금의 만남을 주선하셨다면 앞으로의 만남에도 개입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를 그분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바다가 가까운 거제도 지세포성당

거제도 지세포성당 구조라 소공동체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로 인해 집 앞 바다 갯바위에 미역이 풍년입니다. 소공동체 모임때 오시는 자매님들 드리려 미역과 톳을 따서 포장 해 두고, 미역·시금치·톳나물 무쳐 비빔밥 한 그릇씩 비벼 먹으며 함께하는 소공동체 모임은 평화롭고 은혜롭습니다.

시골 성당이 다 그러하듯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소공동체 역시 4~5명이 고정 참석 인원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소공동체는 구역장님의 노력으로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저런 까닭으로 쉬고 계신 교우의 가정에서도 소공동체 모임을 합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점심 식사로 친교를 나누며, 서로 모르는 교우들도 인사하고 소공동체 모임을 알차게 이끌어 가기 위해 나

름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소공동체 모임 자료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를 펼쳐 놓고, 성가를 부르고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 나누기를 하며

모임을 진행합니다. 일상에서 신앙 생활하며 느낀 점이나 신앙 체험, 묵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피정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돋보기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자유 기도를 잘하시는 쯤마 어머니(83세)와 구역장님의 출석률이 단연 일등입니다. 그 외에 우리 소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규모는 작지만, 알뜰하고 충실한 구성원이 되어, 평범하고 알차게 소공동체 모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보에서 다음 달 소공동체 모임은 어느 집인지 찾아봅니다. 다음 달에는 부활 후 피정을 의논하자고 해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의 만남이 신앙생활의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겨운 소공동체 모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해봅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술』¹⁾

4월 예수의 대사제 기도²⁾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들어 높이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때’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요한 17,1-26)에 주의를 기울이려 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이 당연하게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사제로서 바치신 기도’라고 규정하였다. 이 기도는 우리 ‘대사제’의 기도이다. 또한 이 기도는 그분의 희생 제사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분의 ‘성부께 건너가심(파스카)’과 분리될 수 없다. 이로써 그분께서는 당신을 성부께 온전히 바치신다.”(2747항)

예수의 기도는 당신의 ‘때’가 되었으니 당신이 ‘들어 높이지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청원 이상이며, 당신의 넘겨짐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선언 이상입니다. 이 ‘때’는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되고(요한 13,31)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요한 20,17) 끝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사제로서 당신 자신을 위해 청하신 영광은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아들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요한 17,5) 예수의 새 사제직의 첫 행동은 이러한 준비됨과 청원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 상 온전한 자기 내어줌인데, 지고한 사랑의 행위인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사랑이야말로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둘째 단계는 당신 곁에 머문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간청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요한 17,6)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인류를 위해 사람들 사이에 아버지의 새로운 현존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존은 예수께서 당신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안에서 실현하신 희생 제사로 정점에 이릅니다.

제자들을 위한 간청과 속죄의 기도 중심에는 성화에 대한 청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

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6-19) 이 경우 ‘거룩하게 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본래에는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선 상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구분에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의 ‘보냄’, 파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성화된 인격은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처럼 사명을 위해 세상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내어진 사람은 바로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는 예수의 사명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사제의 기도 셋째 단계에서는 시선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확장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시작하고 역사 안에서 계속될 사명을 통해 믿음으로 이끌린 이들 모두를 위해 간청하려고 아버지께로 향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1)

예수님이 모든 시대의 당신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대사제 기도의 중심에는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이 일치는 세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치에서 기인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재입니다. 그것은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지닙니다. 모두가 실제로 하나가 되기 위해 그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장차 제자들이 이를 일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와의 일치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교 사명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대사제 기도가 지니는 풍요로움의 몇몇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에서 진보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읽고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점점 더 들어서도록 그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분을 위해 ‘거룩하게 되고’ 그분께 더 많이 속하게 해달라고 청하도록 합시다.

1) 베네딕토 16세,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술』, 이진수 옮김, 바오로딸, 2014.

2) 알현 강당, 2012년 2월 1일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